

브라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11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8,515천 km ²	GDP	15,720억 달러(2009년)
인구	193.73백만명(2009년)	1인당 GDP	8,217 달러(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eal(R)
대외정책	중도실리	환율(달러당)	2.00(2009년 평균)

□ 국토 면적, 인구, GDP 면에서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資源의 寶庫'라고 불리울 만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세계 제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철광석 등 각종 광물자원과 커피, 대두, 원당 등 각종 농산자원이 풍부하며, 석유의 완전자급을 이루고 있음.

□ 자동차, 철강 등의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된 중남미 최대 공업국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주축으로 안데스공동시장(ANCOM)과의 연대를 통하여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을 주도하는 한편, 미국과 재생에너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f
경제성장률	3.9	6.1	5.1	-0.2	7.5
재정수지 / GDP	-2.9	-2.8	-2.0	-3.4	-2.3
소비자물가상승률	4.2	3.6	5.7	4.9	4.9

자료: EIU

□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지속

- 2005~06년중 브라질 경제는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투자부진에 따라 각각 3.2%와 3.9% 성장하는데 그쳤음. 그러나 2007년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인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개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세 지속,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은행 여신 증가에 따른 민간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6.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 브라질 경제는 국제금융시장 혼란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PAC의 본격 추진, 자원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FDI 유입, 국제신인도 개선 등의 호재에 힘입어 5.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급격한 내수위축과 수출감소의 여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0.2%)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10월 대선 관련 정부 지출 증가와 내수시장의 확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7.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으로 물가안정세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금융 불안과 헤알화 약세로 인해 2003년에 14.7%까지 상승하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후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기조에 따라 2006년 4.2%, 2007년 3.6%로 크게 낮아짐.
- 2008년에는 헤알화 강세와 정부의 긴축 통화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민간소비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7%로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위축 등으로 4.9%로 하락하였음.
- 2010년에도 기준금리를 세계 최고 수준(현재 10.75%)으로 유지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4.9%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음.

□ 재정수지개선 추세 지속

- 긴축정책 지속으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GDP의4.25%)를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부채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긴축 재정정책과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2005~06년에 통합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3% 수준으로 억제되었고, 2007년에도 금융거래세(CPMF) 폐지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법인세 및 직접세 등 세수가 전년대비 18% 이상 증가한 데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2.8%를 기록함.

- 2008년에는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에 따라 공공부문 지출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조세개혁 추진, 세수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2.0%로 개선되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낮은 국내저축률과 투자재원의 해외의존이 경제성장의 걸림돌

- 브라질은 높은 소비성향과 과거 극심한 인플레이션 경험으로 인한 은행예금 기피 현상으로 저축률이 20% 내외 수준에 불과 (아시아국가들의 경우 30%상회)하는 한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평균 대출금리가 연리 40%를 상회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업기회가 사장되고 있고, 신생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사업여건임.

※ 골드만삭스의 BRICs 보고서도 브라질의 성장장애요인으로 낮은 투자율과 저축률 그리고 과중한 공공부채 및 외채를 지적하고 있음.

나. 성장잠재력

□ 브릭스(BRICs) 국가 중 하나로 향후 성장 잠재력 큼

- 브릭스(BRICs)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은 풍부한 부존자원과 인구 1억 9,80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 그리고 정치, 경제적 안정

을 토대로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한 해 3억의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주요 농작물은 밀(세계3위), 콩(세계1위), 쌀(세계10위), 커피(세계1위), 설탕(세계3위), 면화(세계6위) 등임.
- 석유, 철광석, 석탄, 주석, 망간, 니켈, 보크사이트 등 30종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석유의 완전자급을 달성하였고 2007년부터는 석유수출국 대열에 진입하였음.
- 브라질은 대부분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내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동차, 전자, IT 등 주요 제조업분야에 다국적 기업이 수십년 전부터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음. 브라질 국내기업도 석유, 철강, 항공기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으로 인해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시기에 약화되었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브라질 경제규모가 향후 50년간 연평균 3.6% 성장하여 2025년에는 이탈리아, 2031년에는 프랑스, 2036년에는 영국과 독일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경제개혁 정책 지속 추진

- 브라질은 헤알 플랜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전력, 통신, 석유, 가스 등 기간 산업분야의 국가 독점폐지, 국영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조세개혁, 행정개혁, 사회보장개혁, 노동개혁 등 경제안

정과 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시행해 왔음.

- 룰라 정부도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인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사회보장개혁, 세제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과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11년 1월 출범예정인 지우마 호우세피 대통령 당선자도 룰라 정부의 친기업 성장 주도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분배 정책, 현재까지는 성공적

- 브라질은 룰라 정권 취임 이후 고용확대,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지원책(Bolsa Familia) 등에 힘입어 실질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빈곤축소와 소득불평등 해소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업률은 2003년말 11%에서 2009년말 6%대로 하락하였으며, 저소득층 비율이 2006년 46%에서 2007년 39% 크게 감소하였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13,620	1,551	-28,192	-24,302	-58,000
경 상 수 지 / G D P	1.3	0.1	-1.7	-1.6	-2.9
상 품 수 지	46,457	40,032	24,835	25,290	11,120
수 출	137,807	160,649	197,942	152,995	196,580
수 입	91,350	120,617	173,107	127,705	185,460
외 환 보 유 액	85,148	179,431	192,842	231,888	260,479
총 외 채 잔 액	192,053	223,883	255,610	273,670	310,820
총 외 채 잔 액 / G D P	17.8	17.4	15.6	17.4	15.7
D. S. R.	37.0	27.6	22.5	28.7	23.4

자료 : EIU, IFS

가. 대외거래

□ 2008년 이후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 기록

- 헤알화 평가절하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3년에는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음.
- 2005년에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규모는 2005년 1,183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979억 달러로 67%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규모도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로 2005년 736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73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2005년(447억 달러) 40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2007년(400억 달러)까지 4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수출 증가를 상회하는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어 경상수지는 6년만에 다시 적자(282억 달러)로 반전하였음.

- 2009년에는 253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외국인투자 기업의 배당송금 증가로 소득수지가 337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보임에 따라 경상수지가 2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1,855억 달러)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58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09년 FDI 급감후 점차 회복중

- 2004년에는 M&A호조, 자동차와 통신업 설비투자 증대 등으로 FDI 유입액이 182억 달러(중남미2위,세계10위)를 기록하였으며, 2006~07년에도 FDI 유입액은 각각 188억 달러와 346억 달러를 기록함.
- 브라질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인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추진, 광물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 FDI유입액은 사상 최고치인 45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에 따라 FDI 유입액은 260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0년에는 293억 달러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 헤알화 강세 지속

- 2004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환율 하락세가 2005~06년에도 지속되었음.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2004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말 1.83헤알을 기록하였음.

- 2008년 들어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격등급 상향의 영향으로 2008년 6월초 헤알화 환율은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1.63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2009년 말 환율은 2.0헤알을 기록하여 잠시 상승하였으나, 2010년 11월말 현재 1.76으로 하락하였음.
- 최근 헤알화 강세는 세계적인 달러화의 약세 이외에도 상품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유입, 고금리 및 주식시장 호황 등을 겨냥한 막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과 브라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 대폭 증가

- 1999년 경제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던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3년 490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환보유액은 2009년 2,31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수출증가, FDI와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2,605억 달러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나. 외채상환능력

□ 외채지표 개선 추세 지속

- 수출호조와 FDI 유입 지속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와 외채 조기상환 실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채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실제 외채 상환불능 위험도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총외채 잔액은 2009년말 현재 2,737억 달러 수준이며, GDP대비 총 외채비율은 2004년 33.5%에서 2009년에는 17.4%로 크게 낮아졌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03년 1월 집권1기 룰라 정부 출범

- 2003년 1월 출범한 노동자당(PT)의 룰라 정부는 중도좌파성향의 노동자당 정부라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룰라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대부분 해소됨.
- 2002년 대선 유세기간중 집권노동자당(PT)의 비밀계좌로 불법정치자금 300여만 달러가 입금됐다는 의회 증언에 이어, 노동자당이 법안통과를 위해 80여명의 야당의원들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야당의원 매수 스캔들로 룰라정부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겪었음.

□ 2007년 1월 집권2기 룰라 정부 출범

- 정치 스캔들과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07년 1월 집권 2기 룰라 정부가 출범함.
- 연립 여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정국안정이 기대되나, 연립 여당내 정당간 권력분쟁과 지방정부의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조세개혁 및 사회보장개혁과 같은 경제개혁정책 추진은 다소 후퇴되었음.

□ 집권여당의 지우마 호우세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 2010년 10월 31일 집권여당의 전임 정무장관인 지우마 호우세피 후보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0년 1월 출범예정이며, 차기 정부도 룰라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 격차와 치안 불안 지속

- 브라질은 소득의 상위 10%가 국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의 상위 3%는 전체 농경지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반면에 브라질 국민의 43.5%는 하루 소득이 2달러 이하인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등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룰라 정부 취임이후 소득분배 및 빈곤층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소폭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브라질 6대 도시의 지니 계수는 2002년 0.64이었으나, 2009년에는 0.57로 개선).
- 이러한 사회 현실로 인해 브라질은 20대 80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례로 지목되고 있으며, 기타 빈곤으로부터 파생되는 강력범죄, 마약,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임. 독립 이후 수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으나 대부분 무혈 쿠데타였으며, 잦은 정변에도 불구하고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내전과 같은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한 적은 없었으며, 군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임.
- 절대 빈곤과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심각한 소요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으며, 반국가 단체나 테러 단체의 활동 위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3.국제관계

□ 제 3세계 리더 역할 추구

- 대외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제3 세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등 자주적 외교노선을 표방하고 있음.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 국가연합(G22)을 결성하였고, 남미, 아랍 정상회담을 주도하였으며, UN 안보리 상임위 진출을 추진하는 등 제3세계 국가의 리더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과는 대체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에 합의

- 미국과는 미주 자유무역협정(FTAA) 협상, 철강 분쟁, 농업 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잦은 마찰을 보인바 있으나, 2007년 3월 부시 미국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인 에탄올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음.

□ 남미통합의 실질적 역할수행

- 2007년 5월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 12개국은 안데스 공동체와 남미공동시장, 그리고 수리남, 가이아나 등 소국을 통합하는 남미국가연합 창설을 발표하였음.
- 브라질은 UNASUR 발전은 물론, 남미인프라 통합구상, 남미은행 운영 등 기타지역 통합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0.12)	B2 (2008. 6)
OECD	3등급 (2010. 7)	3등급 (2009. 7)
S&P	BBB- (2010.12)	BBB- (2008. 4)
Moody's	Baa3 (2009. 9)	Ba1 (2007. 8)
Fitch	BBB- (2010. 6)	BBB- (2008. 5)

□ 2004년 이후 국가신용등급 지속적으로 상승

- 금융불안이 발생한 2002년 일제히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던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들(S&P, Moody's, Fitch)이 룰라 정부 집권이후 개선된 거시경제상황을 반영하여 2004년 9월에 일제히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2005년 10월, Moody's가 국가신용등급을 B1에서 Ba3로 다시 한 단계 상향조정한데 이어, 2006년에도 S&P, Moody's등이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그리고 2007년 5월부터 8월중 S&P, Fitch, Moody's, OECD 등 모든 신용평가기관이 경상수지 흑자지속, FDI 유입 및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지표 개선, 신중한 재정정책 실시에 따른 물가안정 등을 반영하여 일제히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바 있음.

□ 3대 신용평가사가 브라질에 투자적격등급 부여

- S&P는 2008년 4월, 경제정책 및 제도의 성숙도를 반영하고 채무부담이 완화되고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한 단계 상승한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조정하였고, 이후 2008년 5월 Fitch도 재정수지, 실업률 등 거시경제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였음.
- Moody's도 2009년 9월의 신용등급을 Ba1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aa3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브라질은 멕시코, 칠레에 이어 중남미의 3번째 투자적격국이 되었음.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미국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ECGD: 단기인수가능
- 독일Hermes: 정상인수

3. 외채상환태도

□ 외채 조기상환 실시

- 2005년 12월 IMF 차관 잔액 156억 달러와 2006~07년에 기일도래하는 파리클럽채무 25.75억 달러를 전액 조기상환하였음.
- 2006년 2월에도 브래디본드 채무잔액 66.4억 달러전액을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환매(buyback)하였음.
- 브라질 정부의 외채 조기상환 실시는 과거 선거가 있는 해에 반복되었던 금융불안을 조기 예방하는 한편, 브라질의 투자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채무구조개선과 더불어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였음.

□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으로 전환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8년 2월, 브라질이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환보유액이 순외채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브라질의 대외지급능력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브라질 교역규모

단위: 천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3,487,476	5,925,866	5,311,210	직물, 전자, 전기, 기계
수 입	2,793,711	4,380,460	3,743,503	철광석, 철강제품, 농산물
합 계	6,281,187	10,306,326	9,054,713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9월 누계, 총투자 기준) 142건 1,336,091천달러

□ 대브라질 수출 및 직접투자 규모 증가세 지속

- 1998년 이후 동국의 외환위기와 금융불안으로 인해 대브라질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브라질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대브라질 수출이 급증하여 2006~07년 수출증가율이 각각 27%와 14%를 기록하였음.
- 2009년 기준으로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제12대 수출대상국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제1대 수출대상국임(2009년 대브라질 수출은 53억 달러 기록).
- 대브라질 투자도 2004년 이후 제조업 및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증가세로 반전됨. 특히 2005년에는 산업은행의 브라질 현지법인 개설 등 144백만달러의 투자를 기록한데 이어 2006년 108백만달러, 2007년 265백만 달러, 2008년 134백만 달러, 2009년 132백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짐.

* 2010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직접 투자 누계: 총142건
1,131백만달러

V. 종합 의견

-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은 재정수지,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FDI유입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조기상환 등으로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
-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는 등 브라질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며, 브라질 정부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제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2008년 이후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이어지고,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점 등은 대외거래부문의 부정적인 요소임.
- 집권여당의 지우마 호우세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룰라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정치, 사회적 안정성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B2등급을 유지코자함.

문의 : 조사역 박현희(☎3779-6676)
E-mail : sarapark@koreaexim.go.kr